

‘V12’ 향한 마지막 점검... 신예들 ‘안방 쟁탈전’ 흥미진진

〈신범수·한준수〉



KIA 타이거즈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 와이번스와 2019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홍재호가 타격을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 개막...20일까지 총 40경기 KIA, 이번주 챔피언스필드서 SK·KT·NC와 6연전 김세현·김윤동 마무리...선발전·야수 백업 고민 여전

KBO리그 2019시즌 최종 리허설이 시작된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범경기가 12일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2019시즌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시범경기는 20일까지 구단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총 40경기가 진행된다.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총 6경기가 펼쳐진다. SK에 이어 KT 위즈(14·15일), NC 다이노스(16·17일)가 광주를 찾아 시범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범경기를 통해 NC의 새로운 홈

구장인 창원NC파크가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NC파크는 18일 공식 개장하며, 19일과 20일 한화-NC전이 열린다. 시범경기는 출장 선수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 육성 선수도 출장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도 정규시즌과 달리 한 경기에 3명 모두 뛠 수 있다. '명예 회복'을 노리는 KIA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시범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KIA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스프링캠프에서 부상과 날씨로 전력 구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몸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김세

현을 시작으로 윤석민, 이범호, 한승혁이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다. 지난 시즌 좌완 필승조로 맹활약한 임기준과 새 전력으로 주목했던 '예비역' 박준표는 각각 어깨 통증과 용종 제거 수술로 오기나와 캠프에서 점검을 받지 못했다. 선발진 두 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마무리는 물론 필승조의 윤곽도 그리지 못했다. '예비 FA 키스톤 콤비' 김선빈과 안치홍을 중심으로 2017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타자들은 견제하지만, 타석에는 세대 교체와 백업 강화라는 고민이 남아있다. 여기저기 빈틈이 많지만, KIA는 앞선 캠프에서 '비'의 방해를 받았다. 이어진 비 때문에 훈련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연습경기도 잇달아 취소되면서 실전 점검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팀 안팎의 사정 때문에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 산적한 만큼 이번 시범 경기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전력 구상의 무대가 됐다. 유력했던 선발 후보 한승혁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앞선 캠프에서 '좌완 루키' 김기훈과 사이드암 임기영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선발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마무리 자리를 놓고는 전천후 시즌을 준비해 온 김윤동과 뒤늦게 대만 캠프에서 시즌을 대비한 김세현의 2파전이 예상된다. '안방 싸움'도 이번 시범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지난 시즌 안방을 차지했던 김민식이 아쉬운 모습으로 오기나와 캠프에서 중도 탈락했고, 한승택도 오기나와 부름을 받지 못했다. '신예' 신범수와 한준수가 시범 경기에서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주중 4경기

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6·17일 주말 경기 입장권은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에 판매한다

다. 초등학생과 장애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초등야구 호남 최강 가린다

KIA타이거즈기 개막 15일까지 11개팀 각축

호남지역 11개 팀이 KIA 타이거즈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다툰다. 제16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1일 개막해 15일까지 무등야구장에서 이어진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7개 팀(수창동, 서림초, 대성초, 서석초, 학감초, 송정동초, 화정초), 전남 4개 팀(화순초, 순천북

초, 여수서초, 순천남산초) 등 11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메달 및 우승기가 수여된다.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주어진다. 또 참가 전체 팀에게는 야구용품이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이강 in

축구대표팀 볼리비아·콜롬비아 평가전 엔트리 발표 '만 18세 20일' 역대 3번째 최연소 A매치 출전 기대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월 두 차례 A매치를 앞두고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유망주 이강인(18·발렌시아·사진)을 전력 발탁했다. 벤투 감독은 1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오는 22일 볼리비아(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 평가전에 나설 태극전사 27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다. 이로써 2001년 2월 19일에 태어난 이강인은 만으로 18세 20일의 나이로 태극마

크를 달게 됐다. 이강인의 발탁은 김판근(17세 184일), 차기석(17세 186일), 강철(17세 215일), 노정윤(17세 224일), 서정원(17세 325일), 김봉수(17세 338일)에 이어 역대 7번째 최연소 발탁이다. 이번에 처음 벤투호에 소집된 이강인이 볼리비아 평가전에 출전 기회를 얻으면 김판근(17세 241일), 김봉수(18세 7일)에 이어 역대 3번째 어린 나이로 A매치에 나서는 영광도 얻게 된다. 올해 초 아시안컵을 마친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강인을 A대표팀으로 호출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의 포지션에 대해 "윙 포워드나 나설 수도 있고, 새드 스트라이커로도 뛠 수 있다"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어느 포지션에서 뛰는 게 대표팀에 도움이 될지 이번에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3월 A매치 국가대표 선수 명단 ▲GK = 김승규(빛설 고베) 조원우(대구) 구성윤(콘사도레 샤프로) ▲DF = 김영권(감바 오사카) 김민재(베이징 궈안) 정승현(가시마) 박지수(광저우) 권경원(엔진), 홍철(수원), 김진수(전북), 김문환(부산) 최철순(전북) ▲MF = 정우영(알사드) 조세종(아산) 황인범(밴쿠버) 이진현(포항) 김정민(리퍼링) 백승호(지로나)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손흥민(토트넘) 권창훈(디종) 이창용(보훤) 이강인(발렌시아) 나상호(도쿄) ▲FW = 황의조(감바 오사카) 지동원(아우쿠스부르크) /연합뉴스



돌아온 '도마의 신'

양학선 17개월만에 국제대회...14일부터 FIG 월드컵 출전

'도마의 신(神)' 양학선(27·수원시청)이 17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가늠한다. 양학선은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대회 참가 차 12일 오전 출국한다. 아제르바이잔 바쿠(14~17일), 카타르 도하(20~23일)에서 열리는 FIG 중목별 월드컵 대회가 양학선의 복귀 무대다. 양학선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서는 건 2017년 10월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이래 1년 5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압도적인 기량을 펼쳐 예선 1위로 남자 도마 결선에 올랐지만, 고질

인 햄스트링 부상 악화로 기권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꾸준한 재활로 기량을 되찾았고, 지난해 말 국가대표로 뽑힌 뒤 모처럼 해외 대회로 나들이를 떠난다. 2주 연속 FIG 월드컵을 뛰는 건 국제대회에서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다. 기량도 검증해보고 자신감도 되찾아야 한다. 최근 부러진 왼쪽 손등뼈에 핀을 박았다가 이를 제거하고 재활에 몰두해 온 양학선은 "국제대회에 나가게 돼 다행"이라며 "오랜만에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펼치고 돌아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